

“가자! 월드컵 8강으로”... 흥명보號 출항



“이제 실전이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신화에 도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오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러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영 제외 22명 첫 전술훈련·컨디션 점검

홍 감독 “약점 지목된 세트피스 강화 하겠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신화에 도전하는 흥명보號(興名保號)가 본격적인 막판 담금질에 들어간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대표팀은 21일 오후 4시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첫 전술 훈련을 소화한다.

소속팀 사정상 합류가 늦어지고 있는 윤석영(윈스파크 레인저스)을 제외한 22명의 태극전사가 한 데 모여 개막이 불과 22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향한 전력 질주를 시작한다.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왼쪽 풀백 김진수는 이날 오전 입국할 예정이어서 오후 훈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유럽과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지난 12일 처음 소집됐지만

중국·일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지난 주말까지 차례로 입국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전술 훈련을 치를 기회는 없었다.

이에 홍 감독은 ‘놀이’에 가까운 각종 훈련 기법을 통해 지난 한 시즌간 쌓인 선수들의 피로를 푸는 데 주력했다. 또 맞춤형 처방으로 선수들이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토록 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18일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선수들이 경희의료원에서 일제히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고 19일부터 전날 오후 9시까지의 끝맛같은 휴식을 부여했다. 모두 이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선수들은 실전을 방불케 할 전술 훈련에 미리 대비하고자 저마다 개인 훈련을 통해

스스로 몸상태를 관리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눈에 띄었다.

국내파 최고 공격수 김신욱은 전날 홍 감독이 정한 복귀 시각보다 무려 11시간 빠른 오전 10시 NFC에 조기 복귀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였다.

홍 감독은 지난 15일 “다음 주부터는 경기 형태의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며 실전 분위기에 성큼 다가선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명보호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세트피스 대비 훈련도 결실일 계획이다. 그 어떤 훈련보다 선수들간의 ‘합’이 중요한 세트피스기에 결코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게 홍 감독의 생각이다.

홍 감독은 “세트피스는 한국이 골을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지난 평가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세트피스 준비는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뉴스

H조 3개국도 실전 돌입

본선에서 맞붙을 H조의 벨기에와 러시아도 소집 훈련을 시작했다.

벨기에는 20일 벨기에 헝크의 크리스티얼 스타디움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룩셈부르크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최근 발표된 24명의 예비명단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에 들어갔다.

한국의 조별리그 첫 상대인 러시아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소집돼 22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이번에 소집되는 러시아 대표팀 선수는 총 25명이다. 러시아 축구협회는 지난 17일 이번 소집훈련에 나설 25명의 선수명단을 발표하면서 세비아의 공격수 데니스 체리셰프(24)를 포함했다.

알제리 대표팀은 이날 말 스위스로 전지 훈련을 떠나서 31일 아르메니아, 내달 4일 루마니아와 평가전을 치르고 내달 7일 베이스캠프가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로 떠난다. /연합뉴스

“뒷모습도 멋지게 남아야죠”

박지성, 오늘 에인트호번-수원 삼성전 은퇴경기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필립스 스포츠 클럽 PSV 에인트호번 창단 100주년 기념 행사 및 팬미팅’에서 박지성 선수가 크로스바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팬들 앞에서 고별 무대를 앞둔 박지성(33)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놨다.

박지성은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PSV 에인트호번 코리안 투어 기자회견에서 “현역 마지막 모습인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다”고 농담 섞어 고별 무대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박지성은 하루 뒤인 22일 같은 곳에서 에인트호번과 수원 삼성의 친선전에 나선다. 이번 코리안투어는 은퇴를 선언한 박지성이 프로 선수로서 치르는 고별 무대다. 국내 팬들 앞에선 2003년 피스컵 이후 11년 만에 클럽 유니폼을 입고 뛴다.

박지성은 “현역으로서 국내 팬에게 보여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상당히 기대된다”며 “잘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폴타임을 소화하기엔 무리라고 했다. 시즌이 끝나고 나서 쉼 24일 경남FC와의 친선전에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후배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지성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엔 내가 막내여서 선배들이 팀을 이끌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됐다”며 “이번 월드컵에는 월드컵을 경험해본 선수가 많이 없어서 선수들 각자 책임감을 느끼고 팀과 동료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역도팀 보성서 구슬땀

선수단 등 50여명

31일~7월19일 전훈련캠프

나이지리아 역도 국가대표팀이 보성에서 전지훈련 동지를 틈는다.

보성군은 나이지리아 올림픽 대표팀 에이전트인 아프리카스포츠센터가 최근 후보지 사실을 거쳐 보성 다목적 트레이닝장을 전지훈련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런던올림픽에서 4위에 오른 마리암우스만을 비롯한 나이지리아 역도 대표팀 선수 35명과 코치·통역 등 50여명은 오는 31일부터 7월19일까지 49일간 보성 역도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보성은 국내 역도팀 선수들의 주요 단골 훈련지이지만, 다른 나라 국가대표선수들이 전훈련캠프를 차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프리카스포츠센터 모세스 스탠데이 아우드 대표는 “한국은 세계적인 역도선수를 배출한 역도 강국으로 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특히 보성 트레이닝장은 시설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김용철 보성군 역도 감독(왼쪽)과 아우드 아프리카스포츠센터 대표가 최근 보성 다목적트레이닝장에서 나이지리아 역도올림픽 대표팀 전지훈련지로 보성을 최종 결정했다. (보성군 제공)

있다”고 평가했다.

보성군은 회천야구장, 별고생태공원 축구장 등이 있어 대학야구팀, 학교 및 실업 역도팀 등 국내 유수의 스포츠클럽과 단체의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앞으로 제2역도 훈련장을 설치하는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

절대강자 ‘한국 양궁’

남녀 5개부문 세계 랭킹 1위

한국이 리커브 양궁에서 전 부문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다. 미국에 밀렸던 혼성부에서 광주 출신 이득영(광주시청)과 오진혁(현대제철) 조가 최근 열린 월드컵 양궁에서 우승하면서 1위를 탈환했다.

21일 세계양궁연맹(WA)이 발표한 세계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남녀 개인, 단체, 혼성부 등 5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은 그동안 남녀 개인, 단체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으나, 혼성부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차 월드컵 혼성전에서 오진혁·이득영 조가 우승해 444,500으로 미국(370,500)을 세계랭킹 2위로 밀어냈다.

오진혁(331,500)은 남자부 1위를 유지했으나 2위 이승윤(코오롱, 322,750)과의 랭킹 포인트 격차가 크게 줄었다. 여자부에서는 윤옥희(예천군청, 281,500)와 기보배(광주시청, 269,500)가 여전히 1, 2위를 달렸다. 곡성 출신 주현정(현대모비스, 193,500)은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남자 단체(412,500)에서 미국,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박정욱기자 jwpark@